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욕구조사

A Survey on the Housing Service Needs for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오유라¹⁾, 이승연¹⁾, 박슬기¹⁾, 김서윤¹⁾, 김나영¹⁾, 조성준^{1,2,*)}

Y.R. Oh MSW, S.Y. Lee MSW, S.K. Park MSW, S.Y. Kim MSW, N.Y. Kim PRN, S.J. Cho MD, Ph.D

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주거서비스 욕구조사를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서비스 내용 및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주거서비스 욕구를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대상은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시설을 이용 중인 정신장애인이다. 설문지 내용은 크게 인적사항, 일상생활, 주거서비스,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2018년 7월~2018년 8월까지 설문조사 실시하여 총 61개소에서 365명의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

• **연구결과** : 본 연구결과 인적사항 영역에서 40~50대가 60%를 차지하였으며, 미혼(70.14%)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주 보호자는 부모(37.26%)임을 볼 수 있었다. 일상생활 영역으로 입소 시설 퇴소 이후 계획 여부는 계획이 있는 자(67.12%)가 없는 자(29.86%)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으며, 퇴소 이후 주거생활 계획이 없는 자들의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명확한 주거지 없음(46.79%)로 가장 높았다. 주거서비스 영역으로는 주거 제공 시설에 대한 정보력 ‘대충안다’를 기준으로 보면, ‘모른다’가 53.15%를 차지하고 ‘안다’가 13.70%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영역에서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는 있다(75.34%)가 없다(11.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자립생활 준비의 어려운 요소는 경제적인 어려움(41.37%)이 가장 컸다. 또한, 자립생활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로는 일상생활(21.37%), 건강관리(19.45%), 주택지원, 가사관리(18.08%)가 비슷한 비중으로 높았다.

• **결론** :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주거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적요인, 환경적요인, 사회·제도적요인, 앞으로의 방향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취약한 주변지지체계를 가진 정신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제공, 경제적인 지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주요용어** : 서울시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욕구, 지원주택

Abstract

• **Objective**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content and policy direction of housing services for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by surveying their needs.

• **Methods** : We surveyed the need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regarding the housing services. The subjects were mentally disabled people who were using mental health facilities within the city of Seoul.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personal information, daily life, housing services, and the independent living support servic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2018 to August 2018, and 365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in 61 places.

• **Results** : In the area regar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tudy, people aged 40 to 50 accounted for 60% of the entire subjects, of which the majority of people were unmarried (70.14%), and the primary guardians were mostly parents (37.26%). In the area of daily life, it was found that the people with a plan (67.12%) after checking out of their current facility was about twice that of people who do not have any plan (29.86%). The biggest reason for not having any plan for housing appeared to be due to not having any registered residence (46.79%). Finally, with regards to the area of independent living support service, those who have needs for independent living (75.34%)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who do not (11.23%), and the biggest obstacle in planning the independent living was found to be economical difficulties (41.37%). Also, daily life (21.37%), health care (19.45%), housing support and housekeeping management (18.08%) showed similar outcomes in terms of the service required to support the independent living.

1)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Seoul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2)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Neuropsychiatry)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 E-mail (sjcho0812@hanmail.net)

• **Conclusion** : The current study examined individual factors related to housing services, environmental factors, soci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nd the future direct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This ultimately suggests a policy direction to provide stable housing, economic support, and services tailored to the needs of the mentally disabled with a vulnerable supporting system.

• **Keyword** : Housing service by Seoul government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Housing service needs for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Supportive housing

I. 서론

주거는 ‘인간’이 삶을 생활하는데 있어 내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이에 정신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아동이든, 대상자가 가지는 특성이 어떠한 간에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주거가 갖는 의미가 더욱 애뜻하다. 한자어 풀이는 ‘살 주(住)’ ‘살 거(厓)’로 인간이 머무르고 생활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거에 대해 단순히 어원풀이만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살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정취와 감정을 느끼며 기억하고, ‘포근한 공간, 휴식처, 안식처’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사회에 만연하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값비싼 매매, 임대료 등으로 인해 ‘하우스푸어’라는 말도 등장하였다. 이 말은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주거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신장애인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더욱 막막하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보호 관련법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거서비스 제공 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병원에 장기간 생활을 하거나 가족이 있는 자들은 가족이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지역사회보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정신장애인의 ‘주거’를 생각하면 관련된 이슈들과 선행연구들이 굉장히 많다.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자립이 취약하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박은주, 2001; 이원석&허수정, 2012). 따라서 주거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병원에 장기입원을 한다든지, 탈시설화 하지 못한다는 것, 회전문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김영미 외, 1999; 김문근&이효표, 2001; 최영민 외, 2016). 또한, 정신장애인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 제공 시설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공급자 관점에서 주거를 제공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서재호, 2008; 강혜규, 2008; 양난주, 2010). 관련해서 주거서비스 제공 시설들이 각각 분절되어 기능한다는 문제점,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주거서비스 선택이 어렵다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변은경&윤숙자, 2010; 이병화 외, 2017; 배은미&박희정, 2017).

이처럼 정신장애인의 주거서비스와 관련된 이슈들과 연구들은 분명히 많다. 많은 이슈들 중 본 연구는 “우리 삶에 무척이나 중요한 ‘주거’가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선택에 맞추어 제공되고 있는가,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제기부터 시작된다. 특히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주거서비스 욕구조사를 서울시 지자체 내에서 비교적 많은 표본으로 실시한 경우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주거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주거서비스의 향후 서비스 내용과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현황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현황을 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주거서비스를 장애인 주택공급 프로그램과 정신장애인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 현황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장애인 주택공급에 대해 장애인 주택 법제를 토대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장애인 주택법제는 크게 주택법제와 사회보장적 주택법제로 나뉜다. 여기서 주택법제 아래에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 및 주택환경 정비법, 장기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사회보장적 주택법제 아래에는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 주택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주택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인 장애인 주택법제는 타 장애 기준과 경제적인 기준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2018년 6월 주거약자법이 서울시 조례로 통과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어서 정신장애인 주거 제공 시설로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 있다. 먼저 전국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수와 병상(정원) 수는 아래 <표1>와 같으며, 재원기간 분포는 <표2>과 같다. 또한, 전국 단위는 아니지만 서울시의 정신재활시설의 분포는 <표3>와 같다.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은 전국단위인데 비해 정신재활시설은 서울시의 분포를 기술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은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지역사회 기반으로 운영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적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이를 보호하는 정원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전국단위의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이라는 시설 기반에 입원되어 있는 정원수가 96,924명으로